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얼음 깨기

## 한 주간의 은혜 신호등

## 교회행사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은 어떤 색깔이었나요?  
하나를 선택하고 간단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초록불(평안):**막힘없이 감사하고 평안했던 순간  
**노란불(기다림):**인내가 필요했거나 주님의 뜻을 구했던 순간  
**빨간불(멈춤):**잠시 멈춰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순간

나의 선택:( ) 색 / 이유: \_\_\_\_\_

### 3월

1일	진공처 6기 모집 마감
5-21일	해비타트 사역
7일	부부사랑 학교 개강
8일	진공처 6기 시작
12/14일	1차 세례 교육
19/21일	2차 세례 교육
21일	세례 문답식
22일	세례식
29일	종려주일 /성찬식
30일-4일	고난주간/고난주간말씀과 기도

### 4월

5일	부활주일
18일	신중년 야유회
24-25일	목자 수련회

## 경배 찬양

##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후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 소식

### 1.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모집

오는 8월 15일(토)-21일(금)까지 캄보디아 라타나끼리 주(프놈펜에서 10시간 거리, 베트남 접경지역)에서 진행될 의료, 미용, 어린이 사역에 동참하실 성도들을 선착순으로 30명 모집합니다.

문의 : 김지훈 목사 010-5025-1824

### 2. 선교학교 학생모집

더비기닝 선교학교의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는 2026 더깊은 선교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더비기닝 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30명 모집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문의 : 이홍기 목사 010-5494-1413

## 선교

## [전준선 선교사]

### 나미비아

1. 나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2. 에로스 여중 고등학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3.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4. 나미비아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 한 문장 큰 울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약속은 지키신다.”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goeffer)-

[요한복음 18장 4-5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요한은 예수님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 실제적인 태도와 능동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마지못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험난한 길을 향해 먼저 첫발을 내딛으셨습니다.

1.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4절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 아셨다’는 것으로 앞뒤로 닥칠 배신, 채찍질, 모욕, 그리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가감 없이 인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고난이 예상되면 인간은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와 군대들이 자신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앞으로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어 체포의 과정을 주도하시려는 선제적 결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하신 사랑의 산물입니다. 주님은 주저함 없이 그 고통의 길을 향해 걸음을 떼셨습니다.

[나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앞에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만약 내가 감당해야 할 힘든 일이 미리 보인다면, 나는 보통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2. 거함의 구체성: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장한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비틀거리며 땅에 엎드러지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놀라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인간이 느끼는 거룩한 공포와 굴복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결코 연약해서 잡히신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무력화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즉, 주님은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40년 뒤 이 말씀을 읽을 독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의 권세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담대한 확신을 줍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의 어떤 의지도 그 권능을 막을 수 없듯이, 예수님은 그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고도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낮추어 포박을 허용하셨습니다.

[나눔] 주님은 충분히 그 상황을 역전시킬 힘이 있으셨음에도 우리를 위해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포박당하셨습니다. 최근 내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고집이나 힘을 내려놓아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거함의 열매: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함’

주님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철저히 타인, 즉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수난이 지닌 ‘대속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자신이 모든 고초를 짊어지는 대신, 사랑하는 이들은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혈기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폭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자기 비움’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나눔] 베드로처럼 내 혈기와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 주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나눔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신 / 요한복음 18장 1-11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세상을 압도하신 주님의 권능이 지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소서.
	순종으로 확인되는 거함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잔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